



농업동향

❖ 농촌관광사업 부문별 등급 부여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농촌관광사업장(체험휴양마을, 관광농원, 농촌민박) 200개소에 대하여 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 4개 부문의 품질을 평가하고 등급(1~3등급, 등외)을 부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급이 부여된 농촌관광사업장은 분야별(관광, 위생·안전) 전문가로 구성된 현장심사단이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심사결과 농촌체험휴양마을 8개소가 평가대상 4개 부문(경관·서비스, 체험, 숙박, 음식)에서 모두 1등급을 부여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농촌관광사업 등급 부여를 통해, 도시민에게는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폭넓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개선을 유도하여 농촌체험관광이 한층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금년에 처음 시행된 농촌관광사업 등급 부여를 시작으로 2016년까지 농촌체험휴양마을 700개소 전체에 대한 등급 부여를 목표로 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우수등급을 받은 농촌관광사업자에게는 온라인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상품홍보체계 구축을 통해 농촌관광 활성화를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농지규모화 사업(잔액기준 1조6,000억원 규모)에 이어 3개 용자사업(잔액기준 1조6,000억원 규모)의 대출금리를 1월 17일부터 추가로 인하하여 적용키로 했다.

대상 사업은 기존 ‘농지규모화 사업’ 외에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농촌주택개량 사업’으로 2014년 신규대출뿐만 아니라 기존대출 잔액도 금리인하 대상에 포함된다. 농지규모화 사업은 2%에서 1%로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3%에서 2%,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은 3%에서 1%, 농촌주택개량사업은 3%에서 2.7%로(단 만 65세 이상 신규지원은 2.0%) 금리가 인하된다. 농식품부는 이와 같은 금리인하 조치로 매년 약 321억원 이상의 농가금융부채 절감효과(농가호당 매년 약 96만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또한 농식품부는 최근의 금리인하 추이를 정책자금 금리에 반영하기 위해 농업종합자금 중 일부 자금(2014년, 약 1조2,000억원 규모)에 대해 변동금리방식을 올해 3월부터 시범 도입키로 하였으며, 농업인이 신규로 대출되는 농업종합자금 중 2년 이내 운전자금에 대해 현행 3%의 고정금리와 시중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